

‘우리식’사회주의에서 우리식(전통성)에 관한 인류학적 접근

趙 玉 羅

목 차

- I. 문화적 접근
- II. 민족문화의 이론화
- III.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보는 ‘인민성’
- IV. 인민성 내면화: 교육과 영도예술
- V. ‘인민성’에 포함된 실용성
- VI. 맺는말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우리식’이란 형용사를 자신들의 국가이념, 이데올로기의 설명에 항상 부치고 있다. 이러한 ‘우리식’은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적 형식의 이론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 사회를 분석하고 동질적 민족집단으로서의 교류를 바람직하게 본다면 당연히 그들이 제시하는 ‘민족적’ 내지 ‘우리식’이 갖고 있는 한편으로는 북한 사회가 재해석하고 있는 우리 전통의 본질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남북한 사회 간의

* 이 연구는 1992년도 교육부 지역연구지원금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미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분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한이 공통의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에서 북한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그들의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여기서 분석대상은 두 가지 차원의 자료를 포함한다. 첫째는 일상생활에 관한 자료로서 가족, 친족, 친구, 직장, 그리고 계층구조 및 지역조직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직접적 자료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행기, 소설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밖에는 파악할 수 없다. 둘째는 정책지침을 보여주는 당의 공식 문건들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바의 '우리식'은 어떠한 측면을 의미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자료를 종합하여 '우리식'이 갖고 있는 북한 사회주의 이념상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측면, 여기서는 주로 전통적 친족체계, 신분, 권위, 통치에 대한 이해와 연관시켜 논리적인 가설을 만들고자 한다.

북한에서 문화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북한사회가 강조하고, 우리 재래 문화의 형식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실현한다고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식'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사회가 갖고 있는 재래 민중적인 정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우리 '인민성'의 정서란 무엇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또는 인류학적 설명방식은 무엇이며 그러한 방식 속에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의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문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I. 문화적 접근

인류학자들은 문화를 “생활양식”으로 정의한다. 인류학에서 내리고 있는 문화의 정의는 학자들 수 만큼 많다고 할 수 있으나 대체로 그 정의들은 두 가지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문화를 적용체계로서 보는 것이다. 이는 한 사회에서 발견되는 문화의 특징은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물리적·물질적 환경과 사회환경에 장기간 적용하면서 좀더 효율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문화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체계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오랜 기간의 경험이 누적되어진 결과로서 그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징들이 조직화되어지는 논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사회구성원의 사고체계 속에 내면화되어 주위세계를 이해하고 행동하게 하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사회를 문화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북한사회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북한사회의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전자의 정의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상징체계, 인간관계에 대한 해석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 사회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후자의 입장에 따른 문화의 정의에 따라 가능하다. 문화의 두가지 정의 가운데 어느 정의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문화가 장기간의 세월 속에서 누적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 구조는 손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환경조건에 따라 많은 문화요소는 탈락하기도 하고 첨가되어 지기도 하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문화의 단위는 대부분의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언어 단위이다. 동일한 언어를 지니고 있는 집단은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전제를 받아 들이면서 북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의 문화를 인지하고 분단 48년 동안 다른 체계 속에서 변화되어 온 문화요소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사회를 설명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북한사회에서 바라보는 민족문화에 대한 관점은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은 문화이며 민족의 발전은 바로 문화의 발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주강현 1990:250). 그러나 문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끊임없는 재창조 과정을 겪는 것이며 많은 '전통'은 극히 최근에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것으로 공식화와 의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Hobsbawm 1983:4). 북한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족문화도 우리 한민족의 전통 가운데 일부가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맞는 목적에 따라 '재창조'된 것이다.

김일성은 민족 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나라와 민족의 한계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는 민족문화의 좋은 전통을 옮겨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세계혁명이 승리한 다음에 가서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인민들의 지역적인 풍습, 관습, 문화 전통은 상당히 오랜동안 남아있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민족 문화유산 가운데서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버려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민족문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으면서 사회주의적 이관 수식어 속에서 선별적인 민족문화를 장려하는 북한사회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반대하고 투쟁하는 문화는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와 자본주의적 반동문화'이다. 즉 "우리는 민족 문화유산 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은 오늘의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라는하는 지침

아래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라는 방향성이 규정되고 있다 (주강현 1990:251).

미풍양식으로 여겨지는 다음의 몇가지 실례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1.집단생활의 서로 돕는 미풍(품앗이, 소거리, 두레, 계, 향도 등), 2.의식주생활의 아름다운 미풍(조선옷, 음식등), 3.가정생활의 아름다운 미풍(부모 및 부부관계, 자녀교양), 4. 군중적 오락경기를 통한 집체적 단결의 미풍(편싸움과 외세와의 싸움 등).

북한사회의 구성원들의 문화는 그들의 생활양식과 그것을 지지하거나 변화시키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접근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 문화는 다양한 층위를 지닐 수 있으나 사회주의 체제 특히 주체사상의 이념 속에 통일된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는 북한 사회는 그 통일성 때문에 다른 사회보다 더 손쉽게 생활양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영역은 우선 북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며 그리고 북한 사회의 사회조직의 특징,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언급과 그러한 이상적 사회관계를 지지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접근으로 인류학적 연구가 가능하리라 짐작된다.

II. 민족문화의 이론화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과의 결합을 '주체사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민족'에 대한 재정의를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북한 사회에서 민족은 자주성을 생명이자 본질적 속성으로 하며 개개 민족이 자주적인 사회 집단으로 존재하고 발전하려는 속성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가는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주강현 1990:248).

이러한 민족 개념 아래 민족문화연구는 북한 민속학 연구에서 요구되어 진다.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특성에 밝는 조선민속학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문화와 생활풍습의 각 부문에서 건전하고 인민적인 전통과 고상한 도덕적 풍모를 과학적으로 천명해야 할” 임무가 부과된 것이다.

“인민적인 민족문화와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훌륭한 민속유산”에서 미풍양속이란 민속유산 중에서 선별된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민속’을 말한다. “우리의 과업은 이 새싹을 조선인민의 생활에 맞게 내용이 사회주의적으로 개변된 풍습을 옮겨 발전시키며 낡고 우리의 진진을 가로막는 낡은 생활과 풍습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데 있다” (김신숙, “우리 나라 협동조합농민들의 가족풍습” 『북한 민속학 자료집』, 극동문제연구소 1974 재간행)

북한 사회에서 아름다운 미풍양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로서 주체사상에서 강조하는 정의적인 인간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 부부, 자녀교양 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족 공동체적 성격이 장유유서, 경노사상과 함께 강조되어지고 있다. 북한 사람들의 실생활에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매우 강하다는 점은 북한 방문기, 귀순자 보고, 소설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일반적인 것 같다. 가족 내 가족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도 여전히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소설에서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로 표현되고 있다.

“그는 아들의 소청이라면 거절하거나 주저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인정 깊은 어머니였다--- 옥녀는 아들의 얼굴

을 녀없이 바라 보았다. 애지중지 키워 온 아들이었다. 이
마에 열이 조금 있어도 눈이 등그래지던 어머니였다. 아들
을 두고 어머니의 희망은 또한 얼마나 컸던가.” (리순우
1980: 43)

“우리가 어머니를 늘그막에라도 돌봐드리는게 옹당한 도리
가 아니겠소.”(김용락 1983: 24)

“사람은 자식을 낳고 길러보아야 부모가 귀한줄 아는가부
다. 성숙이도 가정을 이루고 첫자식을 낳고 보니 혼자 사는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지고,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었다.”(송병준 1987: 16)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늘 바쁘다고 뛰여다니면서... 낳
아준 제 어머니 한분을 잘 못 모시는 사람이 나라를 받들면
얼마나 진심으로 잘 받들겠습니까.”(최봉무, 1987, 수기 「우
리집」 p.77)

또한 성묘를 조상에 대한 효도로 생각하고 조상의 묘소를 자주 찾기를
희망하는 경향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보, 자식들나 후손들이 조상의 뼈가 묻힌 선산을 찾아
그들의 명복을 빌며 세상 떠난 분들을 추억하는 것은 예로
부터 내려오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좋은 풍습의 하나요. 한
식이나 추석날 돌아가신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묘를 찾아가 옛일을 추억하며 그분들의 이루지 못한 념원을
가슴 속에 되새기며 마음 속으로 맹세를 다지는 것이 얼마
나 좋은 일이요?!” (류도희, 1990-4:37)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우애도 비록 떨어져 살 경우에라도 변함이 없
고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북한 사회에도 명절을 매개로 한 우애로운 생
활정서는 여전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주의 건설에 알맞은 방향으로
그 성격과 명절철이 변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의적 관계로서의 가
족관계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은 가족의 화목이 나라의 ‘공고성’과 연관되

어 있다고 하는 북한 당국의 강조와 연관이 있다 (이은숙 1991:56). 이러한 측면은 가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장되어 북한 사회 인간관계의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 장유유서, 경노 사상이 비록 문제제기와 비판에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토론을 전개하는 예들이 소설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됨을 볼 수 있다(곽해룡 1990:27).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남녀차별과 권위주의이다. 많은 북한 방문기에 의하면 교육에서도 남녀구별이 엄격히 지켜지고 유교적 가부장제가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여성에게는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성'과 '여성다움'이 강조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가정 내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이 하게 되고, 사회의 대부분의 '보살피는 기능'은 여성들이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사, 의료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설 속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남존여비적인 사고 및 남성우월주의가 잔존함을 볼 수 있다.

“동문 그가 자길 동정하고 있다고 분해하지만 동무자신은 그를 동정이라도 해 보았나 말일세. 상대는 연약한 처녀지만 그래도 동무야 사내가 아닌가!”(남대현, 장편 「청춘송가하」, pp 31)

북한 가정의 가부장적 구조는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는 정과 함께 혼란을 시키고 자식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효라는 정의 변형을 표시하는 관계가 미풍양속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관계는 북한 사회가 집단 생활에서 서로 돕는 '품앗이' 등의 공동작업 전통과 '편싸움' 등의 놀이를 미풍양속의 실례로 예시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민속의 집단주의적 강조와 함께 전체 사회조직의 통합과 위계를 전통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미풍양속과 함께 장려되고 있는 민속놀이는 자체의 풍부한 '인민성', 높은 문화성, 집체성 등의 이유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민속놀이를 통하여 한민족의 낙천적 기상과 풍부한 정서가 발휘된다고 보는 것이다 (주강현 1990:266). 누구나 일하던 일손을 일단 놓으면 북장단을 칠 줄 알았으며 춤판이 벌어지면 그 속에 뛰어들어 한바탕 춤을 추지 않고서는 참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재정의되고 선별되어진 민족문화를 가장 종합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김일성에 대한 신화이다. 민속학적으로 김일성신화를 분석한 김열규교수는 우리의 전통적 '민속영웅'상을 넘는 원초적인 신화인물로 그를 재설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991:182). 일상적 생활의 전통에서 부터 민속영웅까지를 그리면서 북한은 권력을 사랑과 자애로, 통제를 귀속감으로, 그리고 권력자의 욕구며 의지를 공권력으로 대체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성과 집단성, 전통성과 혁명성, 정과 충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정서 강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구별짓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사회는 생존하기 위하여 '변하지 않고 지켜져야 하는 것'을 전통 속에서 찾으면서 현재 속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사회는 레비 스트로스(1982)에 의한 "신화"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화 속에서 수령과 당과 인민이 각각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로 결속되어 영생불사의 지복을 보장받는 혈연공동체가 북한이 추구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이상형이다.

Ⅲ.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보는 '인민성'

북한 사회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가 조선 민족으로서의 문화적 특질에서부터 출발한 사회주의 건설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바로 주체사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사회 지도원리이고 동시에 사회 조직원리인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하는 혁명이론으로, 혁명과 건설의 주체는 인민대중이고 이들을 주동하는 힘이 인민대중에 있다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이익과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된다(강정구 1990:22). 주체사상을 수행하는 지도노선이 '혁명적 군중노선'이다. 이 혁명적 군중노선의 근본 정신은 인민 대중의 근본 이익과 지향,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여 실제 생활 속에서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바로 민족적 '형식' 속에서 사회주의 '내용'을 담아 내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앙 계획경제나 통제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해서 개별적 행위와 전체 사회의 총체적 이익 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주의 조직원리이다(강정구 1990:27). 북한사회에서 강조하는 인민성은 인민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민족적 정서가 집단주의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실현하는 총체적인 조직원리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 민족의 정서에서 발전되어진 '공산주의적 인간상'에는 취사선택을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통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나쁜 악습과 관습으로 퇴치의 대상이 된다. 이 측면은 사상혁명의 과정을 요구한다고 보며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이름 아래 전인민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기본 방향은 "일제가 남긴 나쁜 관념과 악습을 퇴치(하고)", 개인 향락주의와 관료주의를 퇴치하는 데 두었다. 이 운동은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새로운 민주조선의 민족적 기풍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있

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사상과 기술, 문화로 일색화하는 심각한하고도 거창한 사회적 변혁과정이며, 그것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하여”(1986.12.29. 최고인민회의 제 8 기 제 1 차 대의원 대회에서 한 연설)(백두 연구소 엮음, 『주체 사상의 형성과정』, 1988, p.359). 김일성은 1950년대 후반부터 ‘사상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 공식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관해서는, 양호민, “3대 혁명의 원류와 전개”, 『북한 사회의 재인식』, 한울, 1987.참고)

혁명을 통한 변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걸친 체계적인 운동들이 끈질기게 추구될 수 밖에 없다. 운동의 철저성을 위하여 북한사회에서는 단계적인 목표들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 단계들은 영역별 사업을 요구한다.

북한의 <정치사전>(pp408-410)에서 언급한 아래의 목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문화수준을 높혀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운다. 둘째, 문학·예술을 개화·발전시키며 민족어를 고수·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 형식이 옹계 결합하는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한다. 넷째, 낡은 반동적 문화와 복고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인민들 속에 혁명적 자부심과 민족적 자주의식, 혁명적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는 문화를 건설한다. 다섯째, 문화혁명에서 균중로선을 관철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해관계와 지향을 반영하는 문화를 건설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지혜를 발동시켜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서 가장 강조되는 측면은 혁명이 어떠한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민에게 철저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인민의

일치성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공산주의 혁명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다. 상당히 다른 조건 속에 있는 인민 대다수를 통괄할 수 있는 조건을 장만한다는 것이 그리 손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적 혁명적 열의를 불러 일으킴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민족주체적이며, 군중노선을 관철함으로써,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전 인민에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낙관론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어느 사회나 분화되기 쉬운 불평등한 관계의 핵심을 북한사회는 전문 인텔리집단과 일반 노동자, 농민 간의 격차에서 보고 그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성의 강조와 일반 대중교육의 강화를 수단으로 하는 사상혁명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질적인 요소의 강화가 예기할 수 있는 기술적 낙후, 전문성의 약화라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기술혁명의 목표와 참여범위를 재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혁명을 추진하는 방향은 첫째, 기술혁명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다섯째, 기술혁명에 사대주의를 배격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기술을 개발하되 외국의 과학 기술을 배워 오더라도 주체적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수용, 발전시켜야 한다. 여섯째, 기술혁명은 기술을 전문가나 기술자의 전유물로 여기는 기술신비주의를 극복하고 생산자, 과학자, 전문가들이 서로 협조하여 전 군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군중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노동의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주의 하의 노동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동임을 '사회주의 로동법 (1978년 4월 18일 제정)'으로 명문화하여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박재욱 1990:93). 개인성보다 집단성을 우위에 두는 원칙은 북한에서 집단·

사회관계를 단일화하고 일상생활의 공통성이 증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단일성과 공통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민족이 경험해 온 과거의 문화적 유산 중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유익한 '민속성', '인민성' 그리고 '민주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인민성은 모든 계층을 포괄하되, 차이를 최소화 시키고 집단화된 인민을 의미하며 동질성 문화적 유산을 지니면서 함께 혁명에 동참할 수 있는 인민대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인민대중은 동일한 욕구를 지닌다고 간주되며 동일한 기술적 능력을 지니거나 상호교류가 가능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거기에서 우리는 집단 속에 자신의 정서와 성향, 기술, 전문 지식까지도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극단적 집단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IV. 인민성 내면화: 교육과 영도예술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네 원칙 중 둘째,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교수·교양사업을 자기나라 실정과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진행하며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키우는 주체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동춘 1990:136)

이러한 언급에서 주목되는 점은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교육의 방식이다. 북한에서의 교육은 1세부터 시작된다. 1세부터 4세까지는 탁아소, 5세부터 6세까지는 유치원에서 교육 받은 후 7세가 되면 초등 교육제도에 해당되는 4년제 인민학교에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들에게 국가주도의 체계적 교육이 철저하게 실시되어 '공산주의 인간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형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르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보완하는 학교교육은 '혁명실천'에 씨먹기 위하여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답사', '견학', '생산로동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교실에 한정된 교육이 아닌 이러한 현장교육은 북한 사회의 실정에 익숙하게 하며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소년단이나 사로청조직을 통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집단의 원리를 일찍부터 몸에 익힘으로써 균중을 교양하고 조직할 줄 아는 능력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지는 것이다. 조직활동에서 비판적 토론에 항상 노출되어짐으로써 자신과 남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고 집단적 일치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외향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세대가 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인민학교의 교과과정에도 정치사상교육이 전체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김동춘 1990:151). 사상교양의 내용은 저학년일수록 감정적인 측면의 교육내용을 많이 포함시키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정치이론이나 철학 등을 늘려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 사상교육의 학습방법은 그러나 다분히 「전통적」이다. 가능한 한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고, 책을 여러 번 읽다보면 자연히 모든 것을 깨우치게 된다는 유교적 방법이 장려되어 『로작』, 암송경쟁까지도 유발할 정도이다(김영수 1991 : 156 - 158).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깨 내면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것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학생과 일반 국민들이 하나의 이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여행자들의 기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현장에서의 실습경험을 병행한 사상교육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에서 모범을 삼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학생들이 김일성의 교시나 저작을 자신들의 절대적 정신적 지주로 삼고 영적인 식량을 삼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북한의 학생들은 자신의 실존과 나라 전체의 문제를 연결시키어 실천의 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북한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사명감을 불러 일으키고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김일성과 항일 빨찌산 동료들이 수행한 항일무장투쟁에 기반을 둔 혁명전통에 대한 반복적 교육이다. 북한 공산당의 정통성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한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반을 둔 것이며, 여기서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가지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혁명 전통성의 중심인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바로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인정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혁명전통은 영도예술에서 그 "형상성"과 "통속성"을 갖고 일반 인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영도예술은 북한인민에 맞는 정서적 형식을 취하면서도 혁명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예술창작과 감상을 통하여 조직적 일체화와 체계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북한당국이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려는 시도에서 가장 빈번하게 채택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이 형상화되는 공연예술에서 '민족'은 우선 모든 사건이 한국 안에서 일어나고 한국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아울러 이는 과거 전통 중에서 이른바 퇴보적이고 반동적인 것은 배제하고 사회주의적 현실에 알맞는 진보적이고 통속적인 것은 동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상통한다. 즉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새로운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조한것" ('조선중앙년감', p.221)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 공연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이 영화와 가극, 연극과 소설 등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찬란한 예술적 화폭으로 재현된 것"을 의미할 뿐이다.

북한 예술은 민속적 바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 낼 수 있도록 각색한 전통극, 이야기들을 공연예술화하고 있다. 여기서 앞장에서 살펴본 가부장적이지만 화목하고 정이 넘쳐 흐르는 가족관계, 희생적인 아버지, 역경을 넘어서는 민속적 영웅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통속성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공연예술이 소수의 문화감상가들에게만 감동을 주기 보다는 전 인민이 손쉽게 감동할 수 있는 대중성과 인민성을 지니면서도 혁명성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혁명가극인 '통속적'인 『피바다』에 대한 평(김문환 1990: 324-325)에서 지적되었듯이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소재는 우리 전통문화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일제 하에 수모 받았던 기억을 돌이키면서 현재 주체적으로 사는 사회주의적 삶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감정에 주로 호소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대규모의 등장인물이 그러한 극적인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동원되고 사용되는 음악은 소위 주체적 관현악으로 민족악기에 양악기를 배합한 것으로 귀에 낯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음의 변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의미하는 '현대화'의 한 정형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혁명가극『피바다』는 그 형식에서도 낡고 어려운 종래 가극 형식의 락후성과 제약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속적 바탕 위에서 통속화되고 현대화된 가극형식"으로 북한 당국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성'에 대한 해석이 협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북한의 영화나 연극의 스토리 전개가 극히 도식적이고 신화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마련이다(노재승 1990:387). 이러한 제한점을 북한 예술가들은 규모의 확대와 소재의 통속성 속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여가를 장려하고 토론을 조직결집의 원리로 보고 있는 북한사회에서 사상교

육의 일역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바로 이러한 공연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공동체 구성원의 집단적 열정의 뜨거움을 조직하여 혁명적 열기를 불러 일으키면서 감정의 폭발적 해소를 가능하게 만들어 조직력의 강화와 갈등의 완화 양면에 기여할 수 있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적절한 형상화가 바로 이러한 공연예술이며 동시에 이를 통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기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주체적 예술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인민성'에 포함된 실용성

북한 주민들은 조직 속에 태어나 교육받고 노동하고 여가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철저하게 짜여진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교육에서도 1세부터 국가주도의 이념, 사상교육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조직적 체계성이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바로 이러한 조직 속에서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획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은 노동(생산), 여가, 휴식(소비)시간으로 3분할된다. 이러한 생활 시간구조는 기본적으로 생산영역에서의 조직, 여가 장소 및 공간에서의 조직, 휴식이 행해지는 가정이라는 3분할된 생활 공간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백육인 1990:175)

그러나 이러한 조직성은 인민의 다양한 개성을 획일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온 사회들 중 어느 사회에서도 완전한 개인성의 무시는 찾아 보기 힘들다. 북한사회도 인간의 집단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성'

에서 개인적인 변수들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했기 때문에 해방후 48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사회에서 강조하는 '인민성'이 정체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실천력을 지니기 위하여 북한 사회가 채용한 전략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실제적인 실천력을 지닌 '인민성'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욕구와 집단의 요구가 만나는 장으로서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정서를 집단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하여 개인들은 집단에 단순한 방관자이며 추종자라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개인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집체적 토의를 하면서 다져 진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조직 활동에서 능동적인 태도는 적극 장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은 자신의 사상이나 지식을 공개적으로 털어 놓으면서 집단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스러운 의사개진의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개인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방식을 내면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과 생활현장에서의 일상생활은 기본적으로 수령의 교시와 당의 지침, 직업집단의 관리방식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 규정은 매우 구체적인 개인의 삶 속에 내면화되는 장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단일체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체제가 북한의 주민생활을 지도자(수령)와 당과의 일체감으로 묶어 두어 일상 생활의 활동공간과 범위를 매우 한정시킨다.---이러한 북한 사회의 편성원리는 사회관계의 단순화, 소속집단의 단일화, 일상생활의 공통성을 강화시킨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북한당국은 노동자, 농민 등 성인에 대한 사회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키며, 일반지식 수준과 기술문화 수준을 높

임없이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김동춘 1990:162). “일하면서 배운다”는 구호 아래 이루어지는 성인 대상의 교육에서도 자신의 사상과 지식을 공개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즉 가능한 개인들이 개별적인 처지에서 지니고 있었던 지식이나 사상을 다 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각 단계에 대한 재확인 과정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자나 피교육자나 각자의 입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토론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내면화 과정을 철저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집체토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형식적이라도 문제의 노출이라는 과정이 지니고 있는 실용성은 지적될 만하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주의 농촌정리를 집단주의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분조관리제에 대한 기술에서 일부 드러난다.

“분조관리제는 분조의 성원들로 하여금 분조에 고착된 부침땅을 비롯한 생산수단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필요한 생산준비를 하고 농업생산을 보다 알뜰하게 실속있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땅의 내력과 기후풍토조성에 맞게 적기적작, 적기적작을 비롯하여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서 나서는 요구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 분조관리제에서는 분조에 망라된 성원들의 성격, 체질, 취미, 능력, 기술기능수준, 의식수준 등에 맞게 생산을 조직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며 필지의 토양상태와 기상기후조건, 농작물의 생물학적법칙의 구체적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업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분조관리제에서는 분조의 농업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분조성원들의 집체적 토의와 협의에 기초하여 해결되게 하며 생산에 대한 총화와 평가도 생산자들인 분조성원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진행된다”는 것이다.(손택기, “분조관리제는 사회주의농촌경

리를 집단주의 방식으로 관리운영하는 가장 우월한 관리운영 방법”, <경제연구> 1987년 제 4호 p34.)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물론 이론적이겠지만 이러한 관리운영에서 개인들의 개별적 특성이 고려된 생산방식을 택하며 모든 문제에 관한 토의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온 문제를 토론하면서 극복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점은 '인민성'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도 해당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방안은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배어 있는 집단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현실인식과 해결방안이 연결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겠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사회가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보인다.

농업협동화의 시작은(경험적 단계(1953-1954)) 빈농과 선진적인 농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축의 힘을 공동사용하는 것'과 '로동상호부' 또는 부업적 협동조합 등을 토대로 각 군에 우선 2-3개의 농업협동조합을 시험적으로 조직하여 경험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중적 발전 단계(1954년 말-1956),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1)을 결정함과 동시에 농업 협동화의 완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농업협동화 과정은 한반도에서 전래해 왔던 공동노력의 전통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리 단위에서 통합된 농업협동조합은, 생산에서 분배, 교환, 소비에 이르는 농업 재생산의 모든 고리를 단일의 계획으로 포괄하여 전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리내의 유일한 협동 경영이 되고, 농민에 대한 사회, 문화적 대책 및 시설의 대부분을 직접 담당하고 보충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수요뿐만 아니라 개인적 소유의 적지 않은 부분을 공동으로 충족시키는 분야

까지 확대되었다 (김종채 1990:111).

협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정책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며, 물질적 관심에 기초한 상호이익의 원칙”을 기저로 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수행했다(앞글 109). 그러나 이처럼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자발성을 강조하는 농업방식은 과감한 농업의 근대화나 종자의 개발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산량에 대한 추정으로 알 수 있다. 즉 ‘인민성’이 제한하는 구체적 현실의 한계 그리고 집단주의적 경향이 변화의 폭을 좁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 사회의 ‘인민성’이 기반을 둔 인민 개개인의 민족적 정서, 현실적 요구들이 실천되는 또 다른 장은 바로 의료제도이다. 보건문제를 외국의 힘이 아닌 북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체질적 특성에 맞는 주체적인 민속 의학과 동의학을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동의학을 사회주의 보건의료제도 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문옥륜 1990:200). 이러한 주체적 이념으로 동의학과 신의학의 결합을 강조하는 ‘주체의학’을 발전시키면서 민족적 전통을 살리는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는 동의학이 국민의 체질적 특징과 습관, 지리적 환경, 문화 및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주체적인 민족의학으로 예방에 유용하며, 나아가서 종합적인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우월한 의료 서비스라고 보고 있다. (p.214)

북한 사회의 이러한 ‘주체의학’은 손쉽게 근처에서 자료를 얻고, 민속적 정서에 맞는 치료방식을 확장시킴으로서 의료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리라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발달된 현대의학의 성과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신의학에서 사용되는 약품들이 모두 그 지역의 토속의학에 의하여 보충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약품의 부족등이 야기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인민성'에는 북한사회의 환경과 전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나 방향성이 뚜렷하다. 지역적 특성과 전통에 충실하는 것이 갖고 있는 실용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성'의 강조가 제기할 수 있는 약점은 다른 차원에서 질적인 도약을 힘들게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특성의 장점을 강조하는 만큼 개방성이 부족한 데서 오는 진보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VI. 맺는 말

'우리식' 사회주의가 북한 사회의 내부 구성원들에게 정체의식을 부과하고 생활양식을 구조화하며 전체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식'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민족적 형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안정성은 이러한 이념적인 동질성에 기반을 둔 체계가 안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기술낙후, 생산성 저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은 최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시장체제로의 선회와 함께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능동적인 면에서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미에서 더욱 강조되어 왔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본 특성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당의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의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활력있는 사회입니다.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당, 당의 영도를 충

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위대한 인민,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위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가 '우리식'을 강조하면서 감당해야 한 부분은 고립이었으며 고립된 문화는 정제될 수 밖에 없다는 인류학적 명제가 북한 사회에도 1970년대 중반부터 해당되기 시작했다 (임현진 1991 참고).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진행되어 온 북한 사회의 경험은 비록 그 일체성을 확립하기에는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외부 문화를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배가되는 문화의 탄력성을 갖기는 힘들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생산력 발전을 방어하기 위하여 강화되는 사상교육이 지닌 한계는 너무도 뚜렷하다. 1980년대 후반 들어서 더욱 강화되는 '수령관' 확립과 '혈통론계승'에서 '인민성' 보다 '충성', '충실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사상 교양 교육에서 이러한 강조점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그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며--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하는 것이 주체형 공산주의자의 기본성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수뇌'로서의 수령과 인민을 결합시키는 '혈관'으로서의 당, 그리고 '생명체'로서의 인민대중을 삼위일체로 파악하는 일종의 국가유기체설을 전개하고 있다 (고성준 1992:196).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비록 민속, 미풍양속 등이 소재적인 차원에서의 형식성에 머무르는 차원에 있고 사회주의 혁명성의 고양에 더 역점이 두어졌지만 우리가 주목해야되는 점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지는 집단의 원리이다. 정의적 관계, 가족주의적 전통 속에서 감동을 느끼는 기제는 비록 사회주의적 목적을 위하여 재강화되고 재사회화된 점이 많지만 그 뿌리를 우리 문화의 전통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한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역으로 북한 혁명가극이 대중성을 갖게 하는 작용도 없지는 않겠지만 북한 사회가 지켜왔던 '민족적 형식'이 단절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참고 문헌 >

- 강정구 편, 『민중생활』,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 고성준, 『전환기의 북한과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학강좌교재와 교수모듈연구』 pp 173-221, 통일원, 1993.
- 김대환, 『북한의 지역사회구조』, 『북한사회론』, 북한연구소, 1987.
- 김열규, 『김일성에 대한 신화, 민속학적 연구』, 『북한 연구』 174-189, 1991.
- 김신호, 『주체사상의 정착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서강대 사회학과 석사논문, 1990.
- 곽해룡, 『문학작품에 나타난 북한인민의 생활상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학과 석사논문, 1990.
- 도홍렬, 『북한의 계급정책과 계층구조』, 『북한의 사회학적 연구』, 국토통일원, 1989.
-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 인동, 1988.
- 백옥인, 『북한의 일상생활』, 『북한의 사회』(강정구편), 1990.
-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 이문웅, 『북한의 사회와 가족형태』, 『한국사회론』(사회과학협의회 편), 민음사, 1980.
- ,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동』, 『한국인과 한국문화』(한상복편), 심설당, 1983.
- 이은숙, 『여성과 가족』, 『북한개론』(최명편), 1990.
- , 『여성과 가정생활』, 『북한의 여성생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37-93, 나남, 1991.
- 임현진, 『세계체제와 종속발전』-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교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3권 1호 155-183, 1991.
-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1』, 한울, 1987.

최명 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최흥기, 「북한의 가족제도」, 『북한사회론』, 북한연구소, 1987.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 (eds.)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